

## 주교단 메시지

# 「모든 이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 일본 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 서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 총회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에서 매우 소중하고 존엄한 인명을 빼앗기게 된 점을 반성하여, 세계인권선언(주1)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모든 민족의 권리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비로소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언이 채택된 지 육십 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을 주목하면서, 일본 가톨릭 주교단은 세계 인권 선언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이 인권 존중이 기반으로 자리잡은 사회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를 호소합니다.

###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이며, 또한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주2)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주3)에 따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사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 존엄성에 기반한 권리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임을 믿고 있습니다」(주4).

## 인권은 새로운 위기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육십 년이 지난 지금, 인권 옹호와 촉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적 규모의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생활 수단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주5)에 의해, 점점 격차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주6). 오늘날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시장원리주의적 가치관은 공동선의 촉진보다 이익추구를 우선시한 결과, 그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가며 인권침해를 구조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원리주의는 환경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발부臈이나 수해(주7)만이 아닌, 연료나 식량가격 급등(주8), 수자원 민영화(주9) 등, 이와 같은 일들이 전례 없이 넓은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한층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면, 생존의 위기에 빠진 빈곤층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만약, 개인, 기업, 국가가 오직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 버린 한층 폭력적이고 비뚤어진 세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한 결과, 절망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희생자가 폭력으로 문제를 호소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어, 희생자가 오히려 평화의 파괴자가 되어 버리는」(주10) 일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유예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세계가 아닌, 전 인류의 공동선에 대한 배려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계」(주11)를 추구해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기준, 즉 세계인권선언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모든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인권 옹호와 촉진을 향해

단 한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라도 그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침해입니다 (주12).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지 않는 한, 그 어떤 인권도 결코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어떤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나쳐 버린다면, 다른 모든 인권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차원으로 대응해 나가며, 인권 옹호를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니고 관여해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13). 나아가, 인권 옹호의 책임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제사회도 지니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심각하고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로부터 지켜내야 함과 동시에, 자연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든 인간의 행동에 의해 유발된 것이든, 인도적인 위기의 결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본질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14).

오늘날과 같은 위기적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하나씩 끈질긴 노력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하고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어 소중한 인간관계 형성이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 인간다운 생활을 박탈당하거나 차단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 것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된 사람들과 같은 시점이 결여되어 있다면, 비록 자신은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의 인권 침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측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결코 인권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기회를 통해 기도하며 행동해 나가도록 합시다. 「인권 촉진은 인류애에서 비롯된 책무」 (주15)이며, 「국가와 국가, 사회 집단간의 격차를 없애주고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전략」 (주16)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를 뿔뿔히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하고 존중해 나갈 때, 개인과 사회 양측 모두의 선선은 틀림없이 촉진」 되어 나갈 것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가톨릭 주교단

<주>

1. 정식명칭은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2.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제1조 참조
3. 창세기 1 · 27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  
창세기 2 · 7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아담) 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  
시편 8 · 5-6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 . .」
4. 주교단 전후 60년 평화 메시지 「비폭력에 의한 평화에의 길 ~ 지금이야말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 (2005년 가톨릭 평화 순간旬間) 참조
5. 요한 바오로 2세 · 회칙回勅 「참된 개발이란」 n.9 (1987년 12월 30일) 참조
6.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세계사회경제보고 2005 「불평등이 탄생시키는 고경苦境」 참조  
<http://www.unic.or.jp/new/pr05-074-J.htm>
7. 동 · 2007/2008년판 「기후 변동과의 전쟁 -분단된 세계에서 시험되고 있는 인류의 단결」 참조  
<http://www.un.or.jp/hdr/pdf/release/2007-2008.pdf>
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관/세계식량정보 조기경보 시스템 참조. (FAO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Homepage Regional Food Price Update.  
<http://www.fao.org/gIEWS/english/ewi/cerealprice/4.htm>)
9. 국제연합개발계획/인간개발보고서 2006년판 「물 위기 신화를 넘어서: 수자원을 둘러싼 권력 투쟁과 빈곤, 글로벌 과제」 참조  
[http://www.un.or.jp/publications/pdf/undp\\_hdr2006.pdf](http://www.un.or.jp/publications/pdf/undp_hdr2006.pdf)  
수도 서비스 민영화가 세계적 규모로,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개발 보고서 2006년판이 지적하고 있듯이 「빈곤층의 압도적 다수가 이미 민간 시장에서 물을 구입하고 있다 . . . .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품질의 물이 고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10. 베네딕트 16세 「국제 연합에서의 연설」 (2008년 4월 18일) 참조
11. 요한 바오로 2세 · 회칙回勅 「참된 개발이란」 n. 10 (1987년 12월 30일) 참조
12. 동 ·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2000년) 「단 한 건의 인권 침해는 전 인류의 양심에 대한 침해이며, 인류 전체에 대한 침해와 다름없다」 참조.
13. 동 · (1999년)
14. 베네딕트16세 「국제연합에서의 연설」 (2008년 4월 18일)
15. 요한 바오로 2세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1998년) 참조
16. 베네딕트 16세 「국제연합에서의 연설」 (2008년 4월 18일)
17. 요한 바오로 2세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1999년) 참조